

8월의 열기

- 열사를 기억하며

오월에서 유월로



탐방장소



5·18 사적지 일대
8월 3일 - 4일

부마항쟁 사적지 일대
8월 19일 - 20일



주 고민

30대 교사 4명으로 구성

5·18의 전국화

- 지역간 연결성이 필요하지 않을까?
- 다른 지역의 민주화 운동은?
- 5·18과 연관성이 깊은 부마를 이어보자.

광주에서



청년민주주의 탐방 보고서_8월의 열기



금남로
일대

전일빌딩



5·18
기록관



5·18묘역
일대



망월동
민족민주
열사묘역



국립
5·18
민주묘지

광주 답사의 시사점 - 1

- 기록관, 전일빌딩의 교육적 활용 방안(토의)

- ▶ 실질적으로 아직 학생 눈높이의 자료는 부족
- ▶ 어린 학습자를 고려한 자료 및 시설 필요
- ▶ ‘민주시민교육’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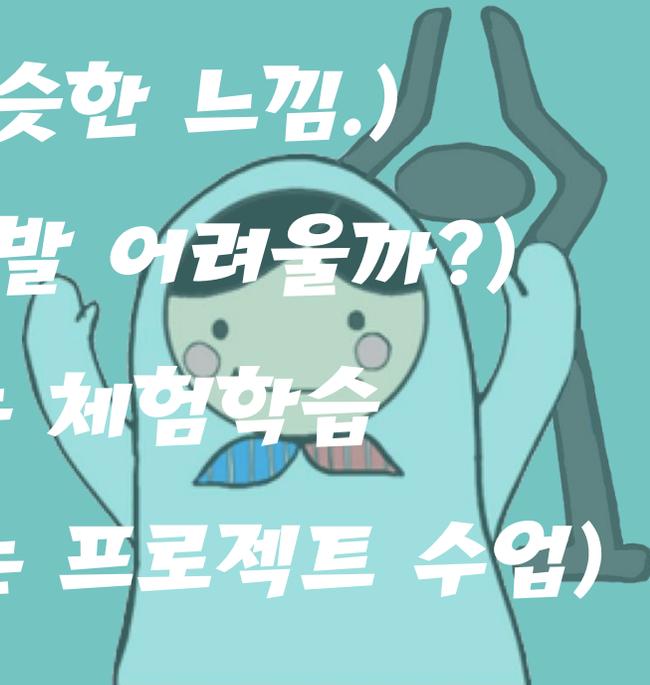
: 역사적 사실보다는 ‘현재’의 문제에 공감하도록



광주 답사의 시사점 - 2

- 5·18 국립묘지 및 민족민주열사묘역

- ▶ 방문객, 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오는 이들을 위한 장소 필요
(※ 다른 민주화운동 관련 기념관 등에서도 비슷한 느낌.)
- ▶ 지역과 지역이 연결되는 하나의 컨셉. (공동개발 어려울까?)
- ▶ 중·고등학교 단위에서의 모듬별로 쪼개서 가는 체험학습
(팀별로 다른 지역을 다녀온 후, 연결할 수 있는 프로젝트 수업)



부산으로 (민주공원)



민주공원을 중심으로 한 부산의 민주주의 발전을 한 눈에 볼 수 있음.

※ 생각 이상으로 넓습니다..

1999년 조성 및 개관
민주항쟁기념관 및 야외 공간으로 구성
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한 민주화운동과정
민주주의의 계승과 발전.

※ 약간은 리뉴얼이 필요하지 않을까?

부산으로 (민주공원)



부산 민주항쟁도

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의

민주화 운동을 모아놓은 그림

(벽화나 작품이 주는 메시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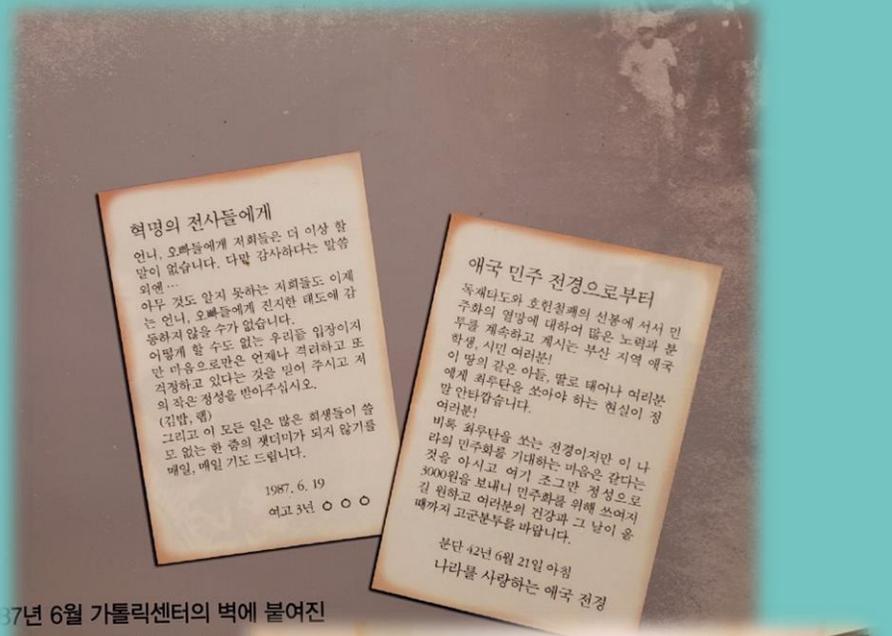
경사를 딛고 올라간 정상에 있는
'민주주의의 횃불'

부산으로 (민주공원)

1970

- 1977 · 4월 부산도시산업선교회 창립
- 1978 · 2월 동일방직 오물 투척 사건
- 4월5일 양서협동조합 설립
- 4월17일 부산대학교 자율화민주투쟁선언서 발표
- 1979 · 1월 중 · 미 국교정상화
- 8월11일 YH 여성노동자, 신민당사 농성 중 여성노동자 김경숙 사망
- 10월4일 김영삼 신민당 총재 국회의원 제명
- 10월16일 부마민주항쟁 발발
- 10월26일 박정희 대통령, 김재규 정보부장에 의해 피격
- 12월12일 12 · 12쿠데타
- 1980 · 4월 사북탄광 노동쟁의
- 5월8일,14일 부산대학교와 동아대학교, 계엄철폐 요구 집회
- 5월 5 · 18민주항쟁
- 7월26일 임기훈 목사 부산 계엄합동수사단에서 조사 도중 사망
- 9월 전두환 제11대 대통령 취임
- 11월 언론통폐합

- 1988 · 10월10일 부산대학교 양영진, 민주화를 촉구하며 투신
- 12월 부산민족민주운동연합 결성
- 1989 · 1월21일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(전민련) 출범
- 3월1일 전국농민운동연합(전농) 결성
- 3월25일 문익환 목사 방북
- 4월1일 부산노동단체협의회(노단협) 결성
- 4월12일 부산교육대학교 이경현, 시위 도중 부산으로 뇌손상
- 5월3일 동의대학교 항쟁
- 5월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(전교조) 창립
- 6월1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 결성
- 6월30일 전대협 대표 임수경 평양축전 참가
- 8월28일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창립
- 9월30일 부산지역 노동조합총연합(부산노련) 창립
- 11월 베를린장벽 붕괴



민중들의 삶은 공간은 다르지만, 같은 시간 속에서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음.
 광주 오월의 녹두서점처럼 부산에는 양서협동조합이, 민주주의를 위한 시위에 동참한 학생들의 모습에서도...

청년민주주의 탐방 보고서_8월의 열기



민주공원_교육적 활용방안



※ **팀원들에게 가장 인상깊었던 장소**

노동, 혐오, 차별, 인권 이야기와 민주주의의 발전 이야기가 전시된 민주공원의 마지막 전시관 부분.

현재의 문제를 고민하고, 생각할 수 있도록 한 점

※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를 보면서, 광주나 경기 지역에서도 볼 수 없었던 내용들을 부산에서 볼 수 있음에 반갑고 신기한 마음이 들었음.

부산으로



부산대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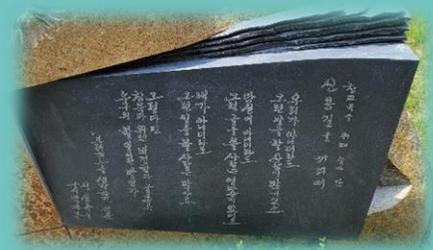


※ 부마재단 1979 부마로드 자료를 기반으로 답사

부산대길 답사 내용 요약

1979년 10월 16일 아침
 여기 반도의 남단 부산에서
 반역을 심판하는
 시퍼런 불노의 칼날 세우며
 옥신철패!! 독재타도!!
 옥신철패!! 독재타도!!
 억눌려 스 없는 해방의 불길
 솟아 오르다
 주최·부산아카데미

- 부산대 캠퍼스 내에 자연스럽게 녹아난 사적지의 모습
- 10·16 부마민중항쟁 기념탑을 중심으로 한 열사들의 비석
 (양영진, 정행구, 장재완, 최종철 등)
- 역사 속에서의 민주화운동들의 연결성이 느껴짐.
- 비석, 기념비들이 많이 존재. _ 계승과 이어주는 것에 대한 고민.



학교 현장에서 민주화운동 확산?

- 동서간 물리적 거리를 극복할 수 있는 노력 필요(지자체)
- 양 교육청간 공동 활동 개발의 노력이 필요함
- 부마기념재단, 5·18기념재단의 교류가 있지만 아직은 부족
- 이는 다른 지역(제주, 경기 등)에도 공동의 고민.
- 민주시민교육과가 사라지고 있는(울산, 대구 등..)
- 사업회, 재단을 넘어 국가 차원의 큰 정책이 필요함



만나야 알고, 만나야 느낀다.

- 결국은 학생들과 학생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더 필요(만남)
- 방학, 주말 등을 이용한 교사 협력 연수, 프로그램 개발

진주에서 온 송모(11·관봉초)군은 "지난 해 가족들과 함께 민주묘지에 온 적이 있었지만, 오늘처럼 자세히 알고 오지는 못했다"며 "친구들이 직접 알려준 만큼 서로 궁금한 점을 쉽게 물어볼 수 있어 어렵지 않았다. 기회가 된다면 또 오고싶다"고 말했다.

박모(11·관봉초)양도 "전재수 군이 어째서 12살의 나이에 죽었어야 했는지 더 궁금해졌다. 수업 시간에 배우지 못했던 많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"며 "광주 친구들을 더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좋겠다"고 답했다.

진주 친구들을 상대로 설명에 나섰던 김강현(11·광주극락초)군은 "어려울 것 같았던 수업도 막상 마치고 나니 뿌듯하다"며 "자주 이런 현장 학습에 나와 5·18은 물론 광주의 구석구석을 알려주고 싶다"고 밝혔다.

5·18묘지서 진주 학생 상대 일일 강사된 광주 초등생들

등록 2022.05.30 13:54:55 | 수정 2022.05.30 14:42:40

기사내용 요약
 학생들이 직접 나서 역사를 생애·민주묘지 등 역사 설명
 "5·18 교육의 새 지평·전국화 마중물 될 수 있길" 희망도



[광주=뉴스1] 이영주 기자 = 광주와 경남 진주지역 초등학생들이 30일 오전 광주 북구 은행동 국립5·18민주묘지 전재수 묘사 묘지 앞에서 현장 체험학습을 하고 있다. 2022.05.30. leeyj2579@news1.com



뜨거웠던 8월의 열기(소감 1)

광주와 부산을 잇는 역사의 현장을 탐방하는 소중한 기회였다.

전라도와 경상도, 다른 공간에서 같은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.

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.

열사들의 의지를 기억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이 남았다.

추모 공간을 조성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

AI시대의 흐름을 고려하여 보다

역동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.

뜨거웠던 8월의 열기(소감2)

민주 열사들을 추모하는 공간을 탐방했던 올 여름은 더 뜨거웠다. 교직에 있다보니 어딜 가든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콘텐츠를 고민하게 되는데 이번 탐방을 통해 힌트를 얻은 것 같다. 분절적인 역사적 사실을 학습하는 것을 넘어 역사적 사실들을 꿰뚫고 있는 중요한 가치와 의미를 학생들과 먼저 나눠야 할 것 같다.

뜨거웠던 8월의 열기(소감3)

자주 찾았던 사적지가 새롭게 다가왔다. 민주화운동을 위해 항상
함께하고 있는 동지, 지인과 광주, 부산의 사적지를 방문하니
새로운 관점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. 특히 부마항쟁과 관련한
부산대학교의 여러 추모, 기념비는 부산대 캠퍼스에 자연스럽게
동화되는 것 같았다. 민주화운동의 교육도 일회성 계기교육이
아니라 학생들이 배우는 교육과정과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나야 할
것이다.

뜨거웠던 8월의 열기(소감4)

광주와 부산은 국가의 폭력에 저항하는 시민들의 참모습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다. 사실, 광주광역시 출신으로 다른 지역의 민주화운동에 대해 관심을 갖지 못하였다. 부산을 방문할 때면 항상 해운대와 태종대 등 관광명소 만을 찾았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부산에서 이어지고 있는 민주·인권·평화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. 민주화운동의 전국적인 흐름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.

감사합니다.



5·18 사적지 일대
8월 3일 - 4일

부마항쟁 사적지 일대
8월 19일 - 20일

